

“FTTH, 좋은 이름 없을까” KT ‘작명’ 고민

KT 전남본부가 ‘이름 짓기’ 고민에 빠졌다.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까지 광가입자망(FTTH·Fiber To The Home)사업이 시작되면서 광가입자망을 대신할 ‘참신한’ 이름 찾기에 나섰다. 하지만 쉽지 않다.

KT 전남본부는 올해 광주시 10개 지역 3만9천가구(계림동·두암동·신안동·삼각동·농성동·마복동·월계동·월곡동·우산동)과 목포 3개 지역 1만6천가구(북교동·용담동·하당 상동), 순천·광양·여수 등 9개 지역 2만 1천가구 등 7만7천 가구에 광케이블을 설치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지역만 광케이블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광가입자망인 FTTH는 전화국에서 가입자 가정까지 광케이블을 깔아놓는 것. 집 근처 전화국까지는 광케이블이, 전화국에서 집까지는 구리선으로 연결돼 있는 기존 인터넷망에 비해 전송 속도가 훨씬 빠르다. 최소 100Mbps 이상의 전송 속도가 보장된다. 기존 ADSL(비대칭디지털가

광가입자망 단독주택까지 점차 확대 기존 인터넷망과 차별화...새이름 골몰

입화회선·최고 100Mbps급)이나 VDSL(최고 50Mbps급)이 2시간 짜리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는데 40분 걸렸다면 FTTH에서는 1~3분이 걸린다.

단순히 속도 뿐만 아니라, 광케이블이 직접 집까지 연결되면서 대용량의 정보를 끊김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문형 비디오(VOD)나 맞춤형 시간 이동 TV 등 양방향 서비스 구현이 가능해진다.

결국 기억하기 쉬우면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의미도 연상시키고 회사 이미지까지 좋게 할 수 있어야 하는 적당한 이름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또 현재 사용중인 ‘메가팩스’라는 단어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KT 입장에서는 기존 인터넷망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하는 탓에 ‘작명’이 쉽지 않다.

KT 전남본부 관계자는 “직원을 사에서 여러 단어가 나오지만 딱히 이거다 싶은 것은 없다”면서 “나름의 법칙을 갖고 상상력을 발휘하다 보면 최첨단 서비스에 걸맞은 이름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화기도 뭉쳐야 산다

휴대폰 이어 공중전화도 디지털 융합 바람
문자메시지 가능하고 위치정보 서비스도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IPTV 결합 활발

디지털 기기 하나에 수십가지 기능이 융합되는, 이른바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 시대다. 휴대전화 뿐만 아니라 유선전화, 공중전화도 마찬가지다. 고유 영역은 사라진 지 오래다.

좋은 것들끼리 합쳐지면서 전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공중 전화의 진화=공중 전화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돈 먹는 예물단지’였다. 경제 논리 따지면 당장 폐기 처분해야 한다. 공중 전화 한 대당 유지 비용(월 7만원)이 매출(월 5만5천원)보다 많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1999년 1만4천94대에서 ▲2000년 1만3천771대 ▲2002년 1만2천768대 ▲2004년 1만2천345대로 감소했고 지난해 9월에는 1만1천115대로 줄었다.

하지만 시민 생활을 위한 기반 시설인 ‘보편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점으로 인해 ‘퇴출’당하지 못한다.

가격이나 별이 사일찮은 상황에서 10원짜리 동전 규격이 바뀌어 동전 투입식 전화기의 경우 주화선별기를 교체하거나 소형 전화기로 바뀌어야 한다. 생돈이 들어가기 되는 상황이다.

이 정도라면 변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고 여차피 투자해야 한다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변신의 시작은 음성 통화 위주의 단편 서비스를 탈피하는 것에서부터이다.

오는 4월 시범적으로 운영된 뒤 광주·전남 지역 등 전국으로 확대, 설치되는 소형 공중전화기에서는 문자 메시지(SMS) 전송이 가능하다. 또 공중 전화를 걸고 있는 발신자의 위치를 수신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위치정보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이와 KT와 공중전화 유지보수 사업을 위탁받은 KT링크는 또 휴대전화 충전 서비스와 KTX 티켓팅·택시 콜 및 버스 배차 시간 정보 등도 서비스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전뿐만 아니라 교통카드 및 KT 카드, 월드컵카드, 신용 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

공중 전화의 변신=이동전화의 활성화, 인터넷



디지털 기기 하나에 여러 기능이 융합되면서 전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시대다.

전화 등으로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유선 전화도 융합이 활발하다.

대표적인 상품이 KT의 ‘안(Ann) 전화기. 휴대 전화의 편리함과 집 전화의 경제성이 장점이다.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SMS)나 발신번호표시(CID)도 가능하고 통화 연결을 가능 및 벨소리도 선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집안 움직임을 단말기에 설치된 센서가 감지해 휴대 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는 외출 관리 기능까지 포함되는 등 ‘똑똑’해 지고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구식 집 전화를 아껴주는 고객들을 위해 보상 판매까지 한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도 유선전화·무선전화·초고속 인터넷·인터넷 TV 등 여러개 통신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10% 저렴한 요금에 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선전화의 컨버전스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휴대전화, 어디까지 가나=휴대전화의 경우 융합(컨버전스)이 키워드가 된 지 오래다.

이동하면서 TV를 보고 인터넷에 접속해 정보를



4월부터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되는 문자메시지 전송과 위치정보 서비스가 가능한 소형 공중전화기.

검색하거나 주고받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상품을 합쳐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통화에서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게임, 지상파 방송 시청까지 가능한 것이 기본 기능으로 확대됐고 화상 통화나 무선 인터넷도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

특히 무선 인터넷의 경우 네이버와 같은 지식 검색이 가능해졌는가 하면 UCC(User Created Contents·사용자 제작 콘텐츠) 열풍을 반영해 인터넷에 올라온 동영상은 무선인터넷을 통해 휴대전화에서 즐길 수 있는 서비스도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3세대 휴대전화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휴대전화에 신용카드 정보를 넣어 세계 어느 곳에서도 모바일 결제가 가능해질 날도 멀지 않았다.

아예 포털 사이트의 날씨 서비스와 구글의 지도 서비스를 휴대전화 화면으로 손 쉽게 조항해 볼 수 있는 기술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 의해 개발돼 상용화가 가능해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URC로봇 신청하세요”

정통부, 희망기관 조사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올해 URC(Ubiquitous Robotic Companion) 로봇 시범사업 추진에 앞서 URC 로봇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다음달 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 공기업, 일반기업 등은 로봇을 활용한 교육, 안내·홍보, 보안·경비 등 희망 하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로봇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이수요 조사결과를 토대로 로봇을 제작, 공급하며 수요기관이 원하는 로봇인 경우 정부는 로봇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URC 로봇이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지능형 서비스 로봇으로 자신이 필요한 주요 기능을 네트워크를 통해 다운받아 이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로봇이다.

네트즌 70% MP3 공짜로 듣는다

네트즌들의 상당수가 MP3 등 음악 콘텐츠를 유료로 구매한 적이 없거나 구매한 적이 10회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 미디어 전문기업인 ㈜DMC 미디어(www.dmcmedia.co.kr)는 최근 6세부터 59세까지의 네티즌 1천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 대상의 약 70%가 이 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최근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평소 음악 청취 방식에 관한 질문(복수응답 가능)에 45%(464명)가 MP3플레이어라고 답했고, 인터넷 음악사이트를 이용한다는 대답이 41.7%(430명)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유료로 음악 콘텐츠를 구매해본 경험이 있는지는 질문에는 이용 경험이 전혀 없다는 대답이 39.4%(407명), 연 10회 이하라는 응답이 29.8%(308명)로 전체의 70%를 차지해 MP3 등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네티즌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movies

이제 영화 즐기는 시간 보셔도
Happy Time

영화안내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 런던약국사거리 ☎예매1544-0800

M관 300 (18세)	최고급관
2관 300 (18세)	
3관 향수-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15세)	
4관 브레이크업:이별후애(爰) (15세)	
5관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12세)	
6관 페인트 베일(12세)/쓴다(15세)	
7관 일투서니스트	
8관 수 (18세)	
9관 넘버23 (15세)	

Megatzen Day 매주 월-금 영화 4,000원 관람
*이프류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무료팝콘취해-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주차장이 편한 극장

엔터시네마

충장로 5가 ☎ 228-2700

1관 일투서니스트 (15세)
2관 바람피기 좋은날(18세)
3관 1번가의 기적 (15세)
4관 복면달호(12세)/소모킹에이스 (18세)
5관 수 (18세)
6관 좋지아니한가 (15세)
7관 행복을 찾아서 (연세)

금,토(2일간) 15시 상영
*지주식 동시 주차장 200대 <3시간 무료>
*매주 화요일 영화 보는날 2,000원 할인(공휴일제외)
*매주 금·토 2,000원 할인
*매주 목요일 Teen Age Day 중, 고생 1,500원 할인(공휴일제외)

항호사랑 영화시영 • 예매: www.joycbc.com /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하남점
상무점(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무역화관 뒷편)

1관 브레이크업:이별후애(爰) (15세)
2관 1번가의 기적(15세)/나비효과2(15세)
3관 쓴다(15세)
4관 넘버23(15세)
5관 페인트 베일(12세)/리틀러너(12세)
6관 향수-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15세)
7관 300(18세)
8관 일투서니스트 (15세)
9관 수 (18세)
10관 300(18세)

*오늘 최대 주차장 • 매입시 상영합니다 1588-7941
*호남 최대 주차장 • 매입시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롬버스 하남점 (10개관) *전환리 상영중 상급원연결 방법
-(1번 or 2번) → 0번

즐거움이 가득 • www.mcl2.co.kr / 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쓴다(15세)
2관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12세)
3관 300 (18세)
4관 넘버23(15세)
5관 수 (18세)
6관 향수-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15세)
7관 일투서니스트 (15세)
8관 1번가의 기적 (15세)
9관 브레이크업:이별후애(爰) (15세)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팝콘취해-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인터넷 예매 문의
*전화예약 가능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1588-9101